



노무현(盧武鉉)

- 1946년 경남 김해 출생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현대 하이츠 빌라 302호
 - 가족 : 부인 권양숙(權良淑), 1남 1녀
-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제53회)
-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년 변호사 개업
- 1983년 부산노동법률상담소 개소
-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7년 대우조선 이석규 장례식 사건으로 구속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동구 입후보, 당선
- 1988년 국회 5공비리 조사특별위원으로 5공 청문회 활동
- 1990년 3당합당 거부하고 민주당 창당
- 1990년 민주당 기획조정실장, '신민당·민주당간의 야권통합추진위원'
- 1991년 통합 민주당 대변인
-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동구 입후보
- 1992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
- 1993년 통합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 1993년 (사단법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설립
- 1995년 통합 민주당 부산광역시장 후보
-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입후보
- 1996년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집행위원
- 1997년 SBS 뉴스대행진 진행자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현)
- 199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 부산·경남 공동선거대책회의 의장
-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당노동행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종로구 지구당 위원장 (현)

당원용



새정치국민회의 종로구 지구당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910호
전화 · 736-6262 팩스 · 736-6282
ID · 노무현 (천리안)

개혁과 통합의 시대 노무현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 **종로구 지구당**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50년만에 이룩한 여야 정권교체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습니다. 국가경제를 다시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과제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실속없이 외형만 성장해 온 국가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큰 원칙에 따라 국가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기업이 쓰러질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국가경제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개혁하는 일에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부도와 파산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과 그릇된 관행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수구세력들의 완강한 저항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은 지연, 학연, 혈연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오직 개혁이라는 한 길위에 모든 국민을 단결시키는 정당입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 종로구 지구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개혁과 국민대통합을 향한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 건설에 앞장 서서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우리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주가는 날마다 떨어지고 환율은 등락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심각한 불안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단순히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정부를 성공시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5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룩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차례의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한채 특정 지역, 특정 세력들로만 정권이 운영되다보니 벗겨내야 할 묵은 때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50년 묵은 이 때를

과감히 벗겨내느냐, 벗겨내지 못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부정한 제도를 뜯어고쳐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국민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모아 개혁과 경제회생에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 찬사와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수백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보다 더한 세계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넷째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수십년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후손들의 역사적 평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실패하여 후손들이 옛말대로 '구관이 명관'이라거나 '그래도 과거 독재 정권이 더 나았다'고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탄압을 일삼아 왔고 야당은 오랫동안 국민들로부터 수권 능력을 의심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야당도 여당이 되었고 여당도 야당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신념과 노선으로 정치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비생산적인 정치싸움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의 정치는 극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주의가 판치는 정치속에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 종로구 지구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첫째 당이 단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당이 단결해야 합니다. 30년 야당의 험난한 길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걸어왔습니까. 바로 정권교체를 통한 '국민의 정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90년 3당합당으로 여소야대가 하루 아침에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으로 바뀌고 공안 통치의 칼바람이 휘몰아쳐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없이 정권교체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단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든 술선수법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여 국민앞에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국민의 정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기득권을 얻었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해왔던 과거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야 바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 차별없이 모든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정권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했습니다. 군사 독재정권의 총칼도 아니요, 여야간의 야합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정부이기에 '국민의 정부' 선언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당원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차별없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당원이 되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6·4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6·4 지방선거의 성패는 '국민의 정부'가 순항을 하느냐 아니면 거센 파도를 맞아 심각한 위기를 맞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압승한다면 '국민의 정부'는 힘을 얻어 개혁과 경제회생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지구당은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6·4 지방선거를 승리하여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당 개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개혁 못지않게 정치개혁의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의 개혁입니다. 정당 정치의 개혁만이 정치 개혁을 추동하고 정치개혁의 성과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회의는 국민의 정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정당이 되기위해 우리 종로구 지구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새로운 지구당의 모습과 새로운 당원상을 만들어 풀뿌리 정치개혁의 출발을 우리 종로구 지구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